

OECD 유아교육과정 유형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의 특성

나 정(羅 靜)*

논문 요약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여 개발한 유치원교육과정을 1969년부터 유치원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7번째 개정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은 비교적 최근에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들을 개발하여 유아교육 기관에 제시하고 현장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OECD가 20여개 국가의 유아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구분한 두 가지 유아 교육과정 전통(조기교육, 사회교육 전통)에 비추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의 교육과정 특성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최근의 유아 교육과정 구성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추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교육과정의 특성들과 핵심 역량 개념의 도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주요어 : 유아, 교육과정, 유치원

*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객원교수

I. 서론

우리나라 유치원은 금년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이 교육과정은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처음 제정하여 시행한지 7번째로 정부가 고시한 것이다.

1969년 우리나라는 유아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유아의 욕구와 흥미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유치원 교육과정을 최초로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유치원 교육과정도 개정을 해왔으며 그 시기는 1979, 1981, 1987, 1992, 1998, 2007이었다(이경환 외, 1998). 이렇게 국가가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정, 개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일찍이 1969년에 국가가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고시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개정해오고 있는 것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OECD(2006)의 조사에 의하면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교육과정을 도입한 경우는 많으나 그 시기는 대부분 최근이다. 예를 들어 3세 이상 유아를 위해 교육과정을 도입한 국가와 그 시기는 호주(퀸즈랜드) 1997년, 영국 1997년, 아일랜드 2004년, 독일 2004-2005년이며, 0-6세 아동을 위한 공통의 교육적 구성틀을 개발한 경우는 노르웨이 1996년과 2005년, 핀란드 1996년과 2003년, 스웨덴 1998년이고, 0-3세를 위한 활동 지침을 개발한 국가는 영국 2005년 정도이다. 이들 유럽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이 비교적 최근에 유아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은 OECD의 핵심역량규명(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등의 영향을 받아 평생학습과 국가 경쟁력 등의 관점에서 유아기와 유아교육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개발 지침을 따르고 동일한 개발 절차에 의해 동일한 구조/체제로 구성하는데 비해, OECD 국가 대부분의 유아교육과정은 자국의 초등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간략한 교육적 구성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과정 개발 시기와 교육과정 구조 등과 같은 측면만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판단한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OECD 국가들보다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표명한 목적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유능한 한국인 양성”이었으나, 2007년 개정된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교과중심 교육을 피하여 내용을 영역으로 조직하고 있는 점이나 교육방법 등의 측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사하다. 초기에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의 5가지 생활영역으로 구성된 내용 영역은 2,3,4차 개정 때에 발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달라졌다가 다시 건강, 사회, 언어, 표현, 탐구의 5가지 생활영역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교수학습 방법은 유아의 흥미와 놀이중심 교육,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김진규 외, 2008; 이경환 외, 1998). 우리나라가 위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유아와 유아기, 유아교육,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점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2006)는 20여개 국가의 유아 대상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교육과정 전통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영어권 국가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목적을 지향하고 취학준비와 관련된 기능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고, 북구와 중부 유럽 국가들은 사회교육 전통을 유아교육에 반영하여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가족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로 여기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틀도 달라지고 포함하는 분야와 강조하는 점도 달라지는데, 유럽 국가들은 유아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사회적 시민적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영어권 국가들은 중요한 학습영역을 확인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요약하였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은 완전히 대비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각각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본 논문은 이렇게 다른 어떤 선진 국가들보다도 일찍 국가가 개발하여 제시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을 OECD가 20개 국가를 비교 분석하여 구분한 두 가지 유아교육과정 전통에 비추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통하여 판단해 볼 수 있는 유아를 보는 시각, 유아교육기관의 성격,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 추구하는 교육 목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교육 방법, 실내외 교육환경의 기능 등에 대한 관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성이 어떤 전통과 유사한지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유아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추출해보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 비교 분석

OECD는 가입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수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주제검토 사업(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을 추진하였다. 1, 2차에 걸쳐 추진된 이 사업에는 총 20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참여 국가가 제출한 배경보고서(Background Reports)와 검토단이 각국의 현장을 직접 방문, 면담하고 작성한 국가보고서(Country Notes) 및 각국 국가조정관들(National Co-ordinator)의 수차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발행하였다. “Starting Strong”이란 제목으로 2001년과 2006년에 두 번 발행한 보고서에는 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동향,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요건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OECD, 2001, 2006).

OECD는 이 두 권의 결과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점이나 체제, 재정 투입 이유, 질 관리 방식, 교직원 훈련과 근로조건 등과 같은 정책의 하위 요소들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적 풍토 속에서 발전해온 것이라는 점을 반복 기술하면서 독자들과 각 국가가 이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도 아울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양대 줄기는 기회확대와 서비스의 질 제고라고 요약하고, 교육과정 내지 교육 프레임의 도입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핵심 요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01).

이에 본 논문에서는 OECD(2006)가 20개 국가의 유아교육과정을 종합 분석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는 조기교육(The early education) 전통이 있고, 북구 및 중부 유럽 국가는 사회교육(The social pedagogy) 전통이 있다고 구분한 내용을 준거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에 개정하여 고시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이 어떤 전통과 유사한 지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김진규 외, 2008; 김진숙 외, 2007a; 김진숙 외, 2007b). 이를 위해 먼저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발 측면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유아와 유아기를 보는 시각, 유아교육기관의 성격, 유아교육목표에 대한 입장, 교육방법, 실내외 교육공간의 기능과 구성 관점, 평가와 질 관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개발 특성

조기교육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국가 차원의 상세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일종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교사를 통하여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목표와 성취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받는 집단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교육과정 전달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을 유아들이 무엇을 배워야하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교육기관에 유아교육의 가치와 목적,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유치원/유아학교의 주요 가치와 필요조건에 대한 원칙을 담은 간단한 지침만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거나 실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기관으로 대폭 이양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구성의 책임이 기관과 교사에게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몇몇 OECD 국가들의 유아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의 <표 1> 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표에 나타난 각 국가의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면, 중앙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제시하는 내용 분량이 많으며, 고등교육수준의 훈련을 받은 교사 비율이 높다. 국가가 제시한 상세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력이 높은 교사들이,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나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OECD국가들의 유아 교육과정 개요

담당정부	국가명	적용연령	분량(페이지)	고등교육수준의 교사 비율	아동 대 교사 비율
중앙	영국	3-6	128	100% 대졸 *학교내만	1:13 *학교내
	잉글랜드	3-6	142	100% 대졸 *학교내만	1:13 *학교내
	프랑스	2.5-6	150	100% *보조교사제외	평균 25.5:1
	멕시코	3-6	142	약 70%	평균 20:1
	한국	3-6	39	100% *유치원	전국평균 20:1
중앙+기초	스웨덴	1-6	22	50%	약 5.4:1 *보조교사포함
	노르웨이	1-6	29	32% *보조교사제외	15:1(3-6세) 8:1(3세이하)
중앙+광역+기초	이탈리아	3-6	24	0	25-28:1 12-14:1(종일제)
중앙+기관	덴마크	0-6	2	65%	7.2:(3-6세) 3.3:1(3세이하)
광역지방	벨기에	2.5-6	플랑드르 30 블어권 498	100% *보조교사제외	20:1 *보조교사제외
	독일	3-6	18-320 *주마다 다양	2%	12-15:1 *주마다 다양

출처: OECD(2006). p.145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함.

반면에 지방과 기관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국가들은 영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적으며, 고등교육 수준의 교사 비율이 낮으나 보조교사가 같이 근무하는 형태이다. 최소한의 지침에 따라서, 교사 및 다른 성인들이 유아랑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국가가 주도하며, 5개 영역별로 내용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각 하위 내용은 다시 수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 및 수준별 내용을 사실상 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교육의 전통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육과정의 한 영역인 [건강생활]의 목표는 4가지인데, 이 목표들 중 한 가지인 “자신의 몸과 주변 세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내용은 “나의 몸 인식하기”이고, 하위 내용은 “감각 기관을 활용하기”와 “나의 몸을 인식하고 움직이기”이다. 또 이 두 개의 하위 내용에는 I 수준 내용 2개, II 수준 내용 2개, 그리고 공통 수준 내용 1개가 들어있어 총 5개의 수준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내용으로 제시된 각 내용의 서술 어미가 “.....한다. “로 되어있는 점이 바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닌 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내용, 즉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일괄하여 위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 부분 발췌).

목표	내용	하위내용	수준별 내용	
			I	II
자신의 몸과 주변 세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나의 몸 인식하기	감각 기관을 활용하기	· 감각 기관을 활용해본다.	· 감각 기관을 협응하여 활동한다.
		나의 몸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 몸의 각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 몸의 각 부분의 특성을 활용하여 움직인다.
			· 자신의 신체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 및 수준별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유의점’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정 해설서]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주제별로 수준별 활동의 예시를 담은 [교육활동 지도자료집] 12권을 개발하여 각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 모든 사항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교사 연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단위 기관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점을 잘 이해하여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매우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장 교사들도 교육부가 제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경우가 94.4%에 달하고, 교육활동 구안시 주요 참고자료도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가 69.9%로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다(나정 외, 2005). 국가가 의도한대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실제 교실에 까지 잘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 분량도 그리 많지 않고, 교육과정의 구성과 실행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기관에 일정 부분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한 내용에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유치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고, 교육청과 지역 사회, 유치원, 교원, 유아,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구성 방침에는 “지역과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을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및 단위 유치원별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사항을 위계적으로 서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영과 관련된 한 가지 내용이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유치원으로 어떻게 위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 부분 발췌).

구분	교육과정 운영 관련 내용
시·도 교육청	나. 시·도 교육청은 관내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 및 유치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과 질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지역 교육청	나. 지역 교육청은 관내 유치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유치원	나.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 조직, 유아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교육 시설·설비 및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발은 대체로 국가주도의 조기교육 전통을 가지면서, 지방과 기관으로 실제 구성과 실행을 이양해 가는 사회교육 전통의 일부 특성을 접목시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관점

OECD 국가들 중 조기교육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유아를 장차 생산적인 지식 근로자로, 또 온건한 시민이 되어야 할 어린 사람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는 유아기를 미래에 대한 투자기로 보며 장차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공부를 학습해야 하는 시기로 여긴다.

반면에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는 유아를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장할 권리를 가진 자율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로 여긴다. 따라서 유아는 나름의 학습연구전략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존재이고, 유아기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시기'라고 본다.

2007년에 개정, 고시하여 금년부터 유치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은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등교육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유용한 학습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고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인 유아를 보는 시각도 이와 같은 맥락임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주관하여 발표한 유아교육관련 정책의 서두에는 유아를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성정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잘 나타나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1997)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은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은 초중등교육 단계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라고 방안 수립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 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4)의 [육아지원정책 방안]은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제를 달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의 위와 같은 명시는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저출산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검토단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현장을 둘러보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아를 바라보는 위와 같은 시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0-6세 유아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애매모호하고 모순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아동기에 대한 표상이 이중적이다.부모들은 3세 이후의 유아들은 주로 정해진 학습결과 (일반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과 셈하기와 관련된)에 집중해야하는 '학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적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교육 부담이 큰 문화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유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OECD, 2004, 나정 외, 2004에서 재인용).

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관점은 유아를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유아기부터 학습을 해야 하는 조기교육의 전통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 기관의 역할

조기교육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유아 교육 기관을 부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며, 유아의 발달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기관으로 여긴다. 따라서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은 미리 정해진 발달과 학습 수준에 도달하도록 기대한다. 당연히 기관이 초등예비학교로 인식되고 '학교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는 유아 기관을 공공 사회교육 기관으로 여기고, 아동과 교육자가 함께 존재하고,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삶의 공간으로 여긴다. 기관의 목표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며 민주적 가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향은 유아대상 기관의 명칭과 관할정부 부처와는 상당히 다른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관의 명칭에 '학교'가 들어가고, 관할정부 부처가 '교육부'일 때 더 '학교화'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벨기에 등은 영유아교육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교육부이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스웨덴 Förskola, 벨기에 Kleuterschool, Ecole maternelle)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에 속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1997년까지, 노르웨이도 최근까지 사회가족복지부처가 영유아교육을 담당하던 역사가 있으며, 북구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기부터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일제를 운영해온 전통이 있다(OECD, 2001). 이러한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아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기관이 학습보다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즉 각국의 유아교육 기관의 역할은 국가가 영유아 교육에 대한 개입을 시작한 초기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여 담당 기관에 어떤 성격을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근거법인 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유치원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유치원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모들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전인적인 발달 35.6%, 사회성 발달 26.1%, 초등학교 준비 24.1% 이었으며, 유치원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으로 여긴 것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의견은 '부모대신 보호'가 40.2%로 나타난 보육시설 이용 이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서문희 외, 2005).

나아가 우리나라는 유아 대상 기관이 유치원을 비롯하여 보육시설, 학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방식으로 아동별 바우처 제도를 채택하고 바우처 수령기관으로 공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유아대상 미술학원 등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물론 중산층가정의 부모들도 자신과 자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관 스스로는 물론 국가와 부모 모두 유치원을 유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택이 가능한 기관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법에 명시한 유치원의 성격, 유치원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의 하나로 포함한 국가, 학교

준비를 위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모두 조기교육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취업모가 증가함에 따라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2008년에 90%에 이르고 취원아의 30%가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의 유치원에 대한 정책도 종일제 운영 확대가 최우선이 되고 있으며, 유치원이 유아들의 학습뿐 아니라 먹고 자는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지역은 모든 유치원이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문무경·김문정, 200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임재택(2008)은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살림집과 같은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변화로 인해 유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국가와 유치원 스스로도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기교육 전통뿐 아니라, 유아들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즉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의 유아 기관이 가지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4. 교육 목표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인지발달과 관련이 있는 교육목표를 국가수준에서 제시하고 기관은 이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읽기와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 인지와 사회성 발달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연령별로 목표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 그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해진 성취결과 보다는 폭넓은 지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목표는 달성해야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헤드스타트 같은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기대하는 성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에서는 유아를 위한 조기 학습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는 [취학전 학습경험을 위한 안내(Guidelines for pre-school Learning Experience)]에서 영어, 수학, 과학, 기술/공학, 역사/사회, 건강교육, 예술 등과 같은 학습 영역과 기준을 제시하고, 도입부에서 이 사항들이 '유아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개발을 돕기 위해 교사가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의 등장이후 기준을 제시하는 이 접근은 더욱 지지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유아 제도를 가진 미국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표준을 제공해주고 일관성을 유지해주며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OECD, 2006).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 중 최근에 교육과정을 개발한 국가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덴마크, 독일 등은 유아기 교육과정을 ‘역량(competency)’ 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1996년에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에 개정하였는데, 학습에 대한 총체적 개념을 수립하고, 유치원의 비형식적인 학습과정을 통하여 아동이 습득하는 기본 역량(basic competence)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기본 역량이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발달과 폭넓은 의미에서의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기술 발달을 뜻한다. 교육목표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본 역량과 다섯 가지 학습 영역(사회, 종교와 윤리, 언어와 글 및 의사소통, 자연과 환경 및 기술, 신체활동과 건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교육목표	교육과정 구성	
노르웨이	아동의 발달과 학습	기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발달 ◦폭넓은 의미에서의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기술 발달
		다섯 가지 학습 영역	사회, 종교와 윤리, 언어와 글 및 의사소통, 자연과 환경 및 기술, 신체활동과 건강

덴마크의 유치원은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달’을 강조하는데, 2004년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Law on Pedagogical Curriculum)이 제정될 때까지 교육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구성을 반대했다.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은 아동의 인성개발, 사회적 역량, 언어, 신체 및 운동, 자연 및 자연현상, 자국문화 및 타문화 이해의 여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각 기관은 아동이 습득하게 될 역량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덴마크는 역량의 개념에 아동이 이해하기 적합한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 습득보다는 역량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교육자들의 역량에 대한 입장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동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덴마크의 유치원은 좋은 환경 제공과 유아들의 다양한 경험을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교육목표	교육과정 구성
덴마크	아동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달	아동의 인성 개발, 사회적 역량, 언어, 신체 및 운동, 자연 및 자연현상, 자국문화 및 타문화 이해 * 역량에는 아동이 이해하기 적합한 지식 포함

이들 국가에서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하고, 역량이란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광범위한 발달 목표의 핵심으로 포함시킨 것은 OECD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여러

국가의 학자들을 참여시켜 추진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에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인 행동 능력, 여러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등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OECD, 2005).

소경희(2007)에 의하면 역량이란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학자는 McClelland로 학문적 적성이나 지식내용을 평가한 검사가 성공적인 삶이나 직업수행을 예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지능보다 역량을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을 인간의 삶, 삶의 질과 관련짓고, 지식과 인지적, 실천적 기술 및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가동시켜서 특정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추출하여 제안한 것이다.

최근 여러 국가들은 역량을 학교교육에 접목시켜 역량중심 교육, 역량중심 교육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가고 있는데, 학교교육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학생들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강조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여 역량을 학교교육의 중심에 두는 접근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소경희, 2007).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교육정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OECD의 핵심 역량 개념을 교육에 도입하여 3년간(2002-2004)에 걸쳐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기초문해력(3R), 핵심역량(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시민의식, 직업특수능력의 4개 범주로 생애능력을 제시하고 평생교육 체제와도 연계하고 있다(김안나 외, 2003; 유현숙 외, 2002; 한승희 외, 2004). 또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핵심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패러다임을 일방적 교육 공급에서 전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 학습,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제로 바꾸자는 비전을 제시하고(교육혁신위원회, 2007),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미래형 교육과정은 지금의 지식과 기술 중심 교육과정에서 창의력, 갈등관리, 문제해결력, 협동과 봉사,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극적 시민성, 예술·문화적 감성 등과 같은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구조화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곽병선, 2009).

유아교육분야에서도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7년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정미라 외(2007)는 기본학습능력을 생애능력을 전제로 하는 기초개념으로 정의하고, 기초 문해력, 핵심능력(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 시민의식(유아기 기본생활습관 형성포함), 직업관련 능력 등을 영유아기부터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이 기본학습능력을 보장하기위한 유아 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하였다. 정광호 외(2008)도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생애초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단연구 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다. 생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유아기에 초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

을 하는 것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중심으로 변인을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국내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에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는 어떠한가?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의 다섯 가지이다.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처럼 다소 포괄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고, 지식과 기술 및 태도, 감정,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유치원 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등과 같이 ‘생활’을 준거로 영역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유아들의 삶과 관련지어 삶속에서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과 하위 내용은 “.....하기” 로, 수준별 내용은 “...한다” 로 제시하고, 지식과 기술을 강조한 목표 차원의 성취결과를 수준별로 매우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의 목표와 유사하다. 물론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새로 개발한 교육과정에서도 지식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 차원의 영역별, 수준별 내용은 지금까지 논의한 핵심 역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상위 목적과 목표는 지향점을 추구하는 사회교육 전통과 유사하고, 새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핵심 역량-상호작용 능력, 자율적 행동 능력, 도구 활용 능력-도 당초에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교육과정 제정 취지나 현재의 교육과정도 하위 내용을 수준별로 상세하게 성취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은 조기교육 전통과 유사한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5. 교육 방법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아동이 주도하는 활동과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를 권장한다. 학교준비에 필요한 학습과 기술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있고 상세하게 제시된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교사가 지도하며 교사대 유아 비율이 높다.

반면에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총체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아동이 가진 학습전략과 흥미를 신뢰하고 다양한 관계와 놀이, 적절한 순간에 제공되는 교육자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신뢰한다. 특히 능동적인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촉진시키는 놀이와 광범위한 프로젝트 작업을 총체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교육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아동중심

이고 학습뿐 아니라 발달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양한 성인으로 구성된 교직원대 유아 비율이 낮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활동 주제와 프로젝트의 선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내용에는 교육활동 전개와 운영 방법부터 흥미영역의 구성방법에 이르기까지 총 9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아교육 전통과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유사한 비중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놀이 중심의 통합적인 교육 활동이고, 유아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사회교육 전통에서 강조하는 방법들과 같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장에 공급한 [교육활동 지도 자료집]은 유아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나정 외(2005)에 의하면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유치원도 56.3%에 이른다. 놀이, 상호작용, 주제, 프로젝트 등과 같은 용어 들은 사회교육학적 전통에서 중시여기는 방법들인데 우리나라 유치원과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나정 외(2005)에 의하면 전국 유치원의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유아 수는 평균 21.0명이지만 공립단설과 사립유치원은 24.8명과 24.3명으로 교사대 유아 비율이 높고, 실내 대집단 활동 비율 37.40%, 실내 소집단 활동 17.6%, 개별놀이는 42.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활동과 소집단·대집단 활동, 유아 주도 활동과 교사 주도 활동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을 따른 것인데 이는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법 들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수법 연수 35.6%에 이어 교사대 유아비율 조정 29.7%, 보조 교사 투입 16.8%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교수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교사대 유아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비중 있게 나타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을 방문했던 OECD 검토단의 의견에 의하면 실제 우리의 교육현실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면담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과는 좀 다르게 매우 극단적인 조기교육 전통을 따르고 있다. OECD 검토단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좀 더 개방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사들이 전체 학급 수업이나 지속적인 대집단 활동을 탈피하도록 철저한 재교육을 받아야하며, 유아들이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것에 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나정·문무경·심은희, 2004).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조기교육 전통과 사회교육 전통을 복합적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유치원 현장과 교수학습 방법은 조기교육

전통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지향 내지 권장과 실제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실내외 공간 구성과 기능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실내가 우선적인 학습 공간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실외는 체육활동이나 건강증진 및 여가를 위한 장소이다.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실내와 실외를 교육적으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외 공간의 조직과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한다. 유아들은 여름이나 겨울에도 하루에 3-4시간을 실외에서 보낸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교수학습 방법의 한가지로 “하루의 교육 활동 운영은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정 외(2006)의 분석에 의하면 실내 개별놀이와 소집단 활동을 위한 자유선택 활동영역을 7가지 이상 설치한 유치원이 91.3%이고, 설치한 교구와 자료의 다양함과 공간 등도 4점 만점에 2.7로 나타나 실내교육환경 구성이 상당히 충실하다. 반면에 실외 활동을 위한 공간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동법 제5조③항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아도 되고, 기준 면적을 완화할 수도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 할 수도 있다. 실외 공간이 체육과 여가를 위한 공간임을 법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나정 외(2005)의 조사에서도 유치원에서 실외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류는 종합놀이기구 90.7%, 모래놀이 83.2%, 물놀이 59.9%, 식물재배시설 61.2%, 휴식공간 67.9%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좁은 공간에 설치하고 있고 실외놀이에 중점을 두는 교사도 2.5%에 불과하다. 교육활동을 위해 구비하고 있는 시설 설비와 교사들의 실제 활동이 모두 실외보다는 실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내외 활동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범 추진한 유치원 평가에서 실내외 환경의 적합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실외에서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 이부미(2008)는 “아이들의 삶과 배움의 공간, 교실이 전부인가?”를 통해 유아교육 공간을 고정된 것으로 보면 교실이 전부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간으로 보면 교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삶과 교육의 밀접함, 인간관계의 질, 안과 밖의 유기적 소통, 자연 친화력, 경계의 개방성, 자유로운 표현력 등과 같은 철학을 유아들을 위한 교육공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육 공간은 학습과 놀이의 통합, 생활과 교육의 통합, 개인과 집단의 통합, 지식의 통합적 구성 등과 같은 측면을 보다 집중적으

로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임재택(2008)도 기존 유아교육 공간은 분절되고 인위적이며 교사주도적인 구성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유아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주로 바깥이나 자연에서 놀이 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유치원 평가에 포함된 실내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점이나 유아를 위한 교육공간과 교실에 대한 임재택과 이부미의 제안 등은 사회교육 전통을 따르는 국가들의 유아교육 공간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다. 즉 우리나라 유치원의 실내외 공간에 대한 관점은 실내를 중시하는 조기교육 전통이 지배적이지만, 공동육아나 생태유아교육 등의 등장과 함께 실외를 중시하는 사회교육 전통의 관점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평가와 질 관리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미리 정해진 목표에 제시된 능력에 대해 개별 유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이다. 특히 초등학교입학 직후에 평가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읽고 쓰기와 산수가 중요한 평가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최소한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이들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표집을 해서 표준화된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각 기관에서 개별적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교육자-부모-유아간 협의를 통한 다양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목표를 평가한다. 모든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기며, 이 기록을 통해 유아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의 초점은 유아보다는 기관의 수행에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선별 등과 같은 경우만이 예외이다. 질 관리에 대한 책임도 기관과 교육자에게 있으며, 국가에 따라 학부모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되, 태도, 지식,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또 유치원 일과 속에서 생활과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시행하며,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기록한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유아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부모 면담, 생활 기록부 작성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유치원 평가 시행계획안에서도 유아의 성취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필검사 형식의 도구 사용을 지양하고, 유아의 발달 상황을 기록하여 학부모 면담과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유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조기교육 전통과 같다. 그러나 다양한 평가절차를 활용하며, 기록을 하고, 유아를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은 사회교육 전통과 같다.

한편,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제19조에는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는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유치원의 시설·설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등을 유치원 평가 기준으로 예시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의한 것이다.

평가와 함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것은 장학지도이다. 유아교육법 제18조에는 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장학지도는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 위주로 지도조언을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유치원의 실정과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장학지도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정 외, 2005).

이렇게 평가와 질 관리 측면에 대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입장은 개별 유아를 대상으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장학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당히 사회교육 전통에 가깝다.

8. 종합 및 요약

지금까지 OECD가 구분한 유아 교육과정의 두 가지 전통과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을 몇 가지 특성별로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대체로 조기교육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인식은 조기교육 전통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조기교육 전통에 가까우면서도 부분적으로 사회교육 전통을 가미하고 있는 특성도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과정 구체화를 지방과 단위 기관에 부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하위 수준별 내용 목표는 매우 상세하게 성취 지향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상위 교육목표는 폭넓은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교육방법으로 유아의 흥미와 놀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점, 평가와 질 관리를 유아보다는 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이다.

또 현재까지는 조기교육 전통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사회교육 전통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특성도 있는데, 종일제의 증가와 더불어 유치원의 역할을 교육뿐 아니라 생활공

간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교육과정 문건에는 사회교육 전통과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조기교육 전통과 더 유사한 특성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실내외 공간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관점이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OECD의 두 가지 유아교육과정 전통과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과의 비교분석 종합

교육과정 특성 결정 요소	조기교육 전통 (미국, 프랑스 등)	우리나라	사회교육 전통 (북부, 중부 유럽 등)
1. 교육과정 개발	◦교육부 주관 하에 목표와 성취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	0	◦유치원/유아학교의 가치와 필요조건에 대한 원칙을 담은 간단한 지침만 제시
	◦교사를 통하여 전달하려는 경향	0 부분 적용	◦교육과정 구체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기관에 위임
2. 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이해	◦생산적인 지식 근로자, 온건한 시민이 될 어린 사람	0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장할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
	◦유아기는 미래에 대한 투자기, 장차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	0	◦자율성과 행복을 추구해야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시기
3. 교육기관의 역할	◦부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관	0	◦공공 사회교육 기관
	◦유아의 발달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초등예비학교	0 최근 적용	◦아동과 교육자가 함께 존재하고,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삶의 공간
4. 교육 목표	◦교육목표를 국가수준에서 상세하게 제시,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	0 상위목표 적용	◦정해진 성취결과 보다는 폭넓은 지향성을 제시
	◦읽기와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 인지와 사회성 발달 등에 대한 기준	0	◦최근 '역량(competency)' 을 중심으로 제시
5. 교육 방법	◦아동 주도와 교사 주도, 주제 중심 작업 등의 균형 권장	0 부분 적용	◦아동이 가진 학습전략과 흥미 신뢰, 다양한 관계와 놀이, 광범위한 프로젝트 작업 중심의 총체적 접근
	◦교육과정 세부목표인 학습과 기술 달성을 위해 주로 교사가 지도, 교사대 유아 비율이 높음	0	◦학습뿐 아니라 발달도 중요하게 간주. 다양한 성인으로 구성된 교직원대 유아 비율이 낮음
6. 실내외 공간 기능	◦실내가 우선적인 학습 공간으로 자원을 집중	0 문건 적용	◦실내외 실외를 교육적으로 똑같이 중요
	◦실외는 체육활동이나 건강증진 및 여가를 위한 장소	0	◦실외 공간의 조직과 활용에 많은 투자
7. 평가와 질 관리	◦목표에 제시된 능력에 대해 개별 유아의 능력을 평가 *각기관의 개별유아대상 시험은 허용 않음	0 부분 적용	◦교육자-부모-유아간 협의를 통한 다양한 평가절차 활용, 기록하여 유아발전 파악과 교수법 채택에 참고
	◦읽고 쓰기와 산수가 중요한 평가 영역	0	◦평가의 초점은 유아보다는 기관의 수행

주1): OECD(2006) p.141의 표 6.2 Features of curricular traditions 를 참고로 일부 내용을 선택, 보완하여 구성함.

2) 우리나라의 칸을 둘로 나눈 것은 왼쪽은 조기교육과, 오른쪽은 사회교육 전통과 유사한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각 칸에 표시된 '0'는 표시한 쪽의 전통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냄.

Ⅲ. 시사점 및 제안

OECD가 구분하여 제시한 두 가지 교육과정 전통은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 교육과 학교, 유아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어떤 전통은 좋고, 또 어떤 전통은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각 국가들의 최근 교육과정 개발 동향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시사점과 함께 향후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할 사항을 아울러서 제시한다.

첫째, 최근 들어 조기교육 전통의 지나친 학습과 사회교육 전통의 기준 없는 총체적 접근에 대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학교준비를 위한 특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구분이던지 양 극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유아 교육과정의 두 가지 전통도 양 극단의 전통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과 함께 몇 가지 논란도 포함하고 있다. 조기교육 전통은 국가 주도의 표준적인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좋은 안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지적인 학습을 위주로 하고 유아교육을 교사 중심 수업으로, 준비교육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이 있다. 반면에 사회교육 전통은 지방과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고 놀이와 생활 중심의 총체적인 접근으로 유아들이 부담 없이 유아기를 보낼 수 있지만,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기준이 없어서 자칫 무의미한 교육이 실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전통의 긍정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와 스웨덴의 유아학교는 사회교육 전통의 아동중심 접근방식과 조기교육 전통의 학습을 결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실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유아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스웨덴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유아교육에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기도한데, 유아의 사회적 역량과 전인적 발달 및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교육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학습과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평생학습의 기초 단계로 여기고 1996년에 교육부처로 통합했으며, 이후 유아학교와 방과 후 보육 및 학교 간의 긴밀하고 동등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스웨덴은 유아에 대한 보호와 양육 및 학습을 폭넓게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의 초기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입장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유아교육을 이관할 때에 같이 자리를 옮긴 교육부의 유아교육 담당 책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OECD, 2006에서 재인용).

“..... 모든 유아는 미리 정해진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에 도달하기보다는 학습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 자신감을 발달시켜야 한다. 유아학교는 놀이와 탐구, 학습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하며, 역량을 가진 유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주며, 그들의 생각과 나름의 이론, 꿈을 존중해주는 실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는 평생 학습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Martin-Korpi, 2005).

반면에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교육과정의 학습중심 교육목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교육목표위원회(NEGP;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가 1997년에 제시한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향후 학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5가지 목표는 건강과 신체 발달, 정서적 행복과 사회적 역량, 적극적인 학습 태도, 의사소통 기술, 인지와 지식이다. 학교에서의 성취를 위하여 준비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조기교육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역량과 태도 등과 같은 사회교육 전통의 특성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EGP, 1997, OECD, 2006에서 재인용).

또 UNESCO가 주관한 델로르 보고서(Delors Report)에는 21세기 교육을 위한 목표로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같은 존재를 위한 학습, 놀이와 실험 및 집단 활동을 통한 행동을 위한 학습, 흥미와 선택 및 교육적 학습 환경을 통한 배움을 위한 학습, 민주적 방식과 차이를 존중하는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지적인 내용도 아니고, 문해발달과 산수기술도 아닌, 사회교육 전통의 ‘역량’ 개념과 유사한 학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는 이 목표들이 유아를 위한 교육목표로도 적합하지만, 유아의 참여가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육자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Delors, 1996, OECD, 2006에서 재인용).

이렇게 조기교육과 사회교육, 두 가지의 유아교육과정 전통은 최근 들어 상호 바라보기를 넘어 조금씩 다가가기와 통합하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학습을 좀 더 강조하고, 조기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아동을 중심에 놓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기의 지나친 조기 학습 강조에 따른 유아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종일제를 이용하는 유아들의 증가와 같은 현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교육 전통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위 교육목표를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실외 공간을 중요한 교육공간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준비를 위한 학습위주의 실용적인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유아교육 이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아동중심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사회교육 전통의 교육과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들어 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식이나 교과보다는 삶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유치원 교육과정 단계부터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노르웨이, 독일 등 북구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 새롭게 유아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자국의 오랜 사회교육 전통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있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교과를 중심으로 구성한 교육과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실제 삶과 더 연계된 몇 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소경희(2007)는 앞에서 기술한 몇몇 국가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동향은 역량과 관련된 논의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하고, 역량관련 논의가 교육과정에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역량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기본 방향이나 관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교과이외의 다른 학습영역도 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틀로 고려해야 한다. 즉 교과영역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거나 교과영역이 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유일한 틀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접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과정 구성시 교과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학생들의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경희의 제안을 이미 유아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한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나 독일이다. 최근 독일은 PISA의 낮은 평가 결과에 자극을 받아서 유아교육단계부터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주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육과 보호, 양육을 통합하는 포괄적 교육개념을 채택하고, 교육과정에서 사회성을 갖춘 유능한 아동,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민주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 교육전략으로는 발달 영역과 아동의 다양한 지능(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이 동시에 개입하는 총체적 집단 프로젝트를 선택하였다.

특히 베를린 주 교육과정의 기본 목적은 유아가 역량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인데, 여기서 역량은 자아 역량과 사회적 역량, 지식 역량, 그리고 7가지 선택교육 영역에서 학습방법 역량을 말한다. 7가지 선택교육 영역에는 신체 및 운동과 건강, 사회 및 문화생활, 의사소통(언어, 쓰기와 미디어), 예술 활동, 음악, 기본적인 수학경험,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기본적 경험이 포함된다. 또 이들 역량은 각각 세상 속의 아동, 공동체 속의 아동, 세상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아동과 같은 여러 관점으로 분화된다. 이렇게 유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습 목표와 교육자들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독일의 새로운 교육과정은, 사회교육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총체적 접근이 기준이 없어서 교육목표가 분산되고 교육자들의 책임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준다. OECD(2006)는 이와 같은 독일의 새 교육과정을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유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 중등학교 차원에서는 이미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비교를 시작한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하면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도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 사용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2007년에 개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이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편과 함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도 그와 동등한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곽병선(2009). '미래형 교육과정을 생각 한다', 교육정책포럼, 통권 188. 4-7.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1주기('08~'10) 유치원 평가 추진 계획 통합(안),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2008.10.28.
-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53 호.
- 김안나·김태준·김남희·이석재·정희욱(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규·김진숙·민용성·문미옥·김영실·김혜진(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1)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 김진숙·박순경·민용성·문미옥·김영옥·양옥승·이기숙·나정·임재택(2007a). 유치원 총론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김진숙 외 24인(2007b).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나정·류숙희·고미경·성화영(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나정·문무경·심은희(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서울: 양서원.
- 나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자료 심층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4).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2004.6.11.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7).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IV). 1997.6.2.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안). 2007.8.24..
- 문무경·김문정(2008). 유치원 종일반 운영실태 조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2005). 보육교육이용 및 육구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 연구, 제25권 제3호, 1-21.
- 유현숙·김안나·김태준·김남희·이만희·장수명(2002).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환·노희방·이기숙·박찬옥·정미라·김영옥·홍용희·장영희·나정(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이부미(2008). '아이들의 삶과 배움의 공간, 교실이 전부인가?', 유아교육 공간, 아이와 교사를

- 행복하게 하는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5-55.
임재택(2008). '유아교육 공간, 비움과 채움의 길을 찾아서', 유아교육 공간, 아이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32.
정광호·이승중·금현섭·이계오(2008). 생애초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단연구 모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 정미라·박은혜·신은수·권정윤(2007). 영유아기 핵심 역량 표준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인
적자원부.
- 한송희·강현주·노일경·허준(2004).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 개혁 방안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 OECD(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 OECD.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논문접수 2009년 5월 1일 / 1차 심사 2009년 5월 20일 / 2차 심사 2009년 6월 17일 / 게재승인 2009년 6월 25일

* 나정: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구고령화와 교육인력 개발",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영유아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등이 있다.

* e-mail: nana34@hanmail.net

Abstract

Characteristics of Korean Kindergarten Curriculum compared with OECD's Two Curricular Traditions

Na Jung*

Korea is applying 7th Kindergarten curriculum into the field which was developed since 1969 under governmental leadership. However OECD member countries have recently developed curriculum framework for childhood education.

This article analyzed and contrast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kindergarten curriculum with OECD's two curricular traditions(early education and social pedagogy) classified by the investigation within 20 member countries' childhood education field. Korean kindergarten curriculum is very similar with the curriculum of early education tradition countries. Some implications were derived on the basis of recent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 constitution trend. From now on, we should actively discuss about introduc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re capacities of curriculums with social pedagogy traditions to Korea's kindergarten curriculum.

Key words: Early childhood, Curriculum, Kindergarten

* Dongguk University